



# 은행 (Positive)

2월 연체율: 1월보다는 나쁘고, 근 3년래에선 좋다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6년 2월 말 연체율은 0.62%(+4bp YoY)로 상승했습니다. YoY 지표를 기준으로 근 2~3년래 가장 좋은 수준이었던 지난 1월보다는 악화되었으나, 당월 또한 양호한 수치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규 연체 증가와 상·매각의 감소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중 연체율이 YoY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 국내은행 2월 말 연체율 0.62%(+4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6년 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62%(+4bp YoY)로 상승 (그림 1~6)
- 차주별 연체율은 법인 중소기업 1.02%(+12bp YoY), 자영업자 0.78%(+2bp YoY)로 상승. 법인 중소기업은 지난 1월 YoY 상승폭이 3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나 재차 확대됨. 그럼에도 지난 달을 제외하면 근 2년래 가장 낮은 상승폭.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19%(+9bp YoY)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11개월 연속 YoY 상승을 나타냄
- 가계 연체율은 0.45%(+2bp YoY)로, 지난 1월 YoY 변동폭이 44개월 만에 음수를 나타내었으나 소폭 상승으로 다시 전환. 신용 등 일반대출(0.90%)과 주택대출(0.31%)은 각각 1bp, 2bp YoY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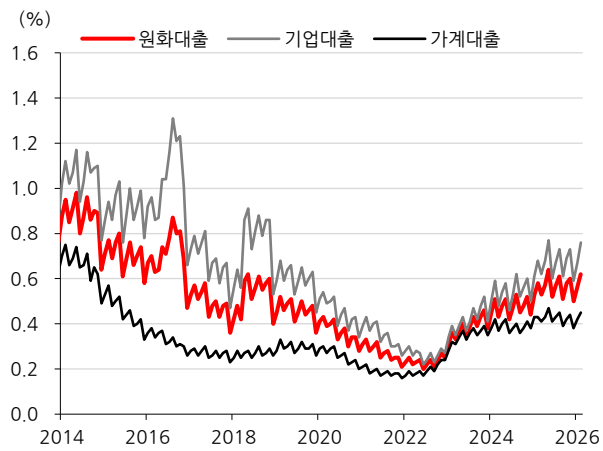
## 신규 연체는 늘고 연체채권 정리는 줄어들고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2월 말 15.3조원(+13% YoY)으로 추산 (그림7)
- 2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3.0조원으로 3% YoY 증가 (그림9).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3조원(-28% YoY)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부터의 2월 정리를 중 최저치를 나타냄 (그림10)
- 기업 (추정): 2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16% YoY로 추산. 중심이 되는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 증가율은 지난 1월보다 상승했지만 이 또한 전월치를 제외하면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준. 자영업자 연체잔액은 대출 성장의 둔화에 발 맞추어 낮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함 (그림12)
- 가계 (추정): 2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7% YoY로 추산. 신용 연체잔액이 +2% YoY에 그친 데 반해, 주택담보 연체잔액이 10% YoY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12)

## 1월보다는 나쁘고, 근 3년래에선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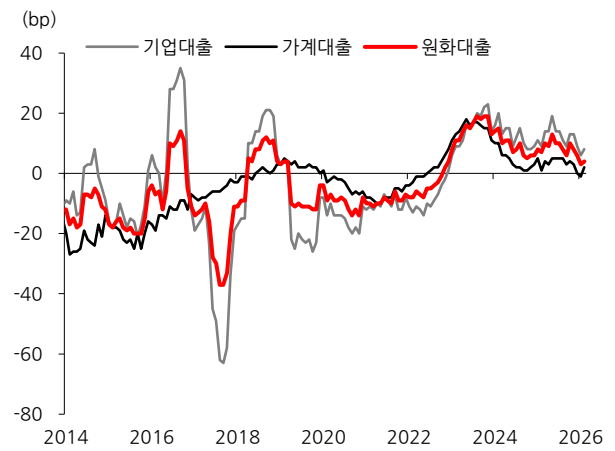
- 2월 말 연체의 YoY 지표들은 근 2~3년래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1월보다는 악화되었으나 전월 지표를 제외하면 이 또한 가장 양호한 수치인 것이 대부분이었음. 이는 신규 연체의 증가뿐 아니라 상·매각이 적었던 점(=낮은 정리율)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금리변동주기 도래로 인한 repricing 부담이 높아진 주택대출에서 연체가 늘어난 점은 우려 요인. 다만 이는 대출종류 중 비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품군에 해당
-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연중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4Q25부터의 시장금리 상승이 건전성 부담으로 전이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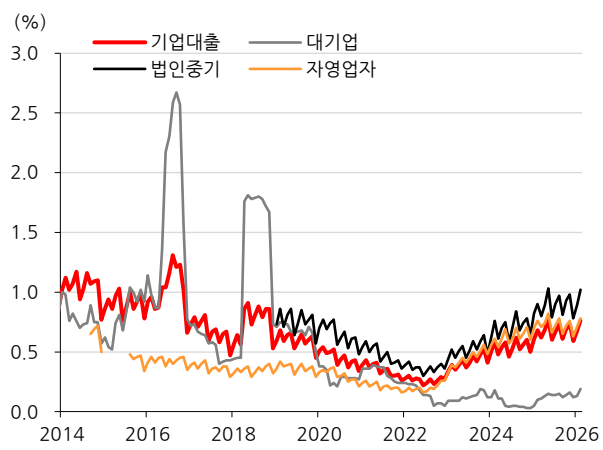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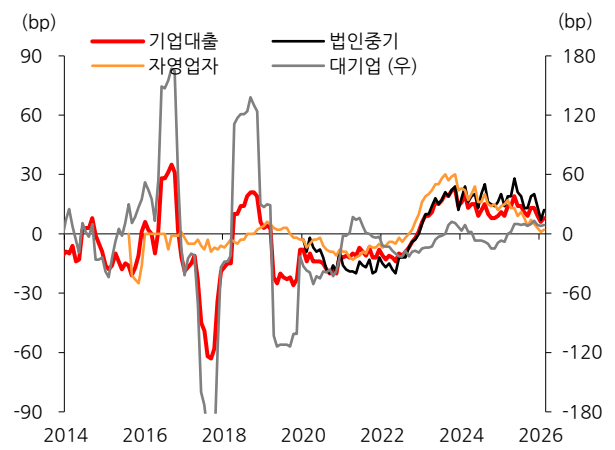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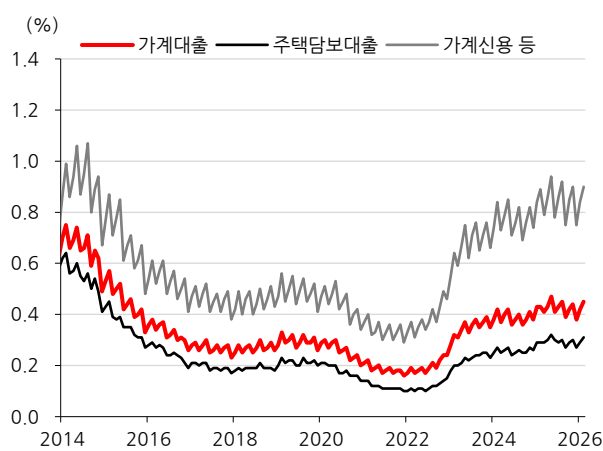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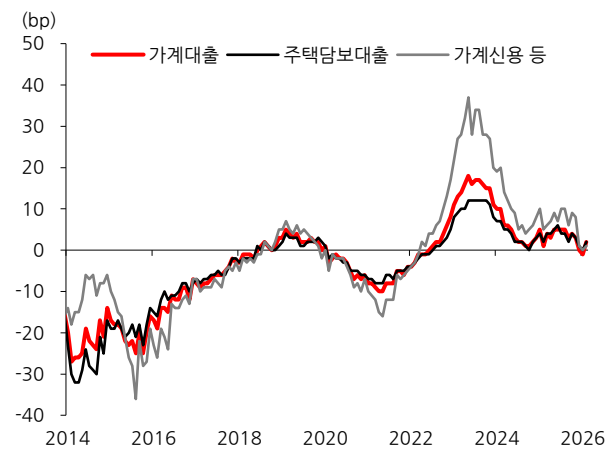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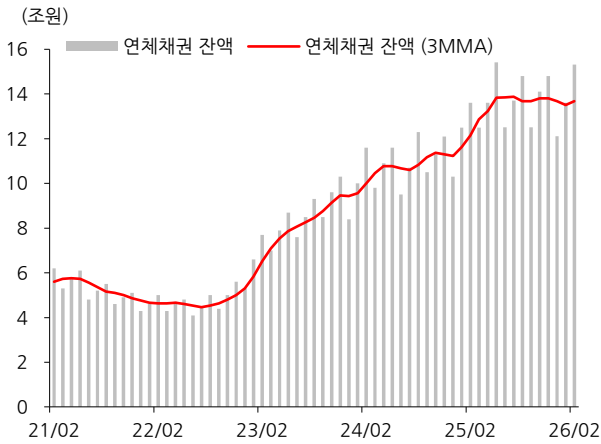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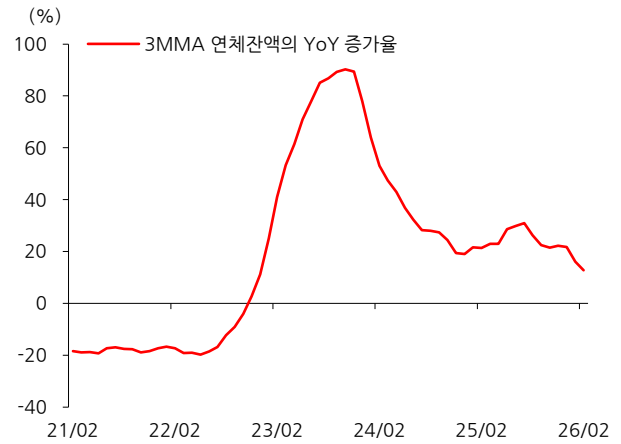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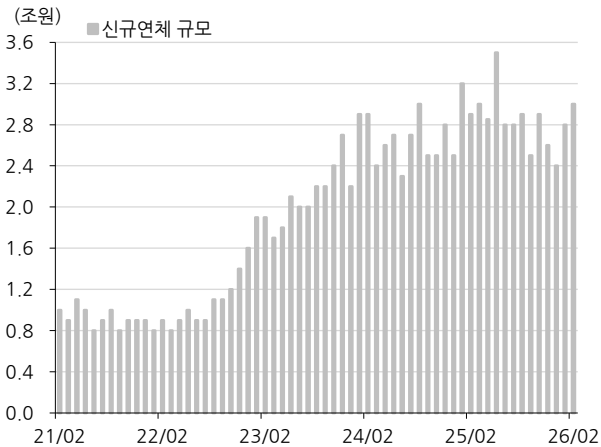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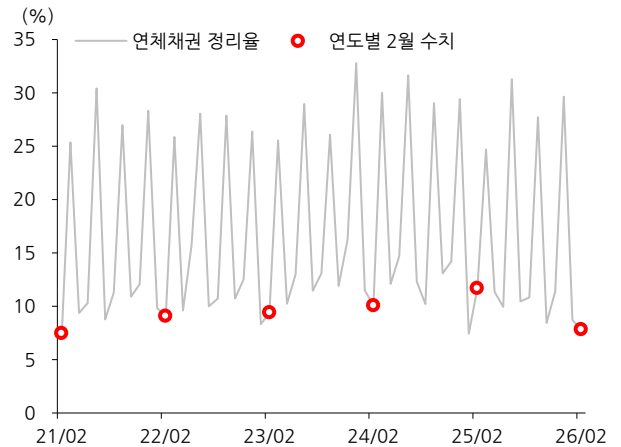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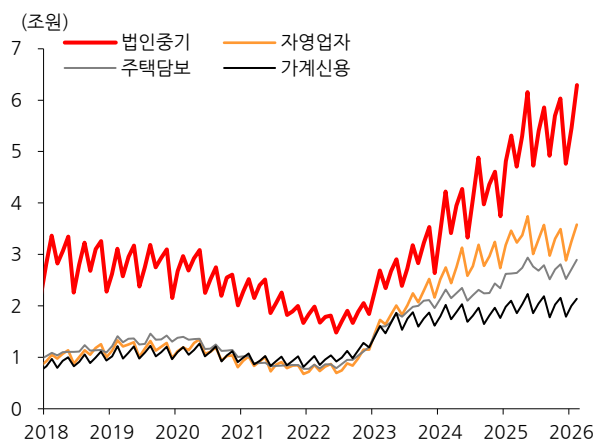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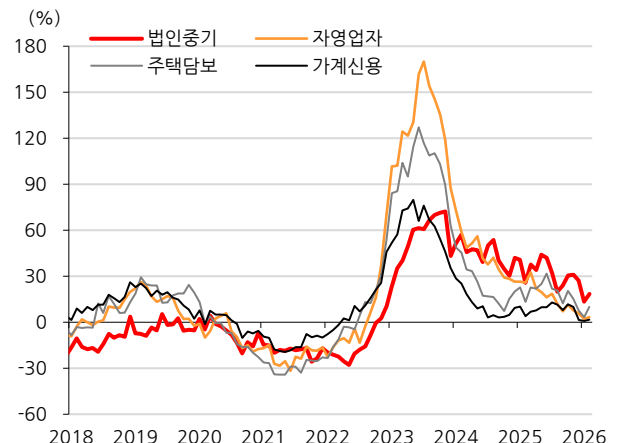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6년 4월 17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